

지역 소식통

완주군, 2~6개월 영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완주군이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 3월 완주군은 오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됨에 따라 생후 2~6개월 영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심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켜 탈수와 고열 등 증상을 발생시킨다.

전파는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발생하기 쉽다.

백신 접종방법은 입으로 먹이는 방식으로 두 종류의 백신(로타리스 2회 접종, 로타텍 3회 접종) 중 한 종류의 백신을 선택하여 접종하면 된다.

다만 1차 접종 이후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한다.

1차 접종은 생후 15주가 되기 전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고 최대 생후 8개월이 되기 전에 모든 차수의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접종기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원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조장진 주무관 첫 월급 일부 장학금 기부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김제시 교육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장진(27) 주무관이 첫 월급 중 일부인 100만원을 김제시 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 주무관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년 동안 뛰어난成績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랑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으로 대학 진학에 도움을 받아 흥미에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동시에 김제시 사랑장학생으로 선발돼 장학금을 받아 학업에 도움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이후에도 노령진 전문 강사들이 직접 김제에 내려와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제시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에서 2022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수험생활을 보낸 덕분에 시간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작년 6월에 실시한 2022년도 제3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올해 2월 1일부터 교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시작

김제시보건소(소장 정명자)는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에게는(매월 200명 정도)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과 콩, 우유, 김 등의 식품이 배송되며,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인구증가 가파른 상승세

올해 449명 인구 증가… 신축아파트 입주·민생과 직결된 인구정책 파급효과로 분석

김제시(시장 정성주)의 인구가 2022년 1년간 542명이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 1월에는 207명, 2월에는 84명이 증가해 8만 1,746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들어 158명이 자연감소 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 인구증가는 449명으로, 정책 승수효과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되며, 2월 한달간 증가된 연령별 현황을 보면 중고교층 21명, 중년층 52명, 장년층 63명, 노년층 34명 등 고른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활력의 내실까지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의 영향도 있지만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 중·고등학생 대상 김제시립장학금 및 격려금 확대 신설, 청년 농촌보금자리·농업 스타트업 단지·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폐기기사업 추진 확정 등 주거와 양육, 교육, 일자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탄탄한 인구정책의 파급효과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특강, 인구학의 권위자 조연태 서울대학교 교수의 인구특강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인구감수성 향상과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지역 인구활력을 위한 정책발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철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 특화사업과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인구활력이 넘치는 김제를 실현하겠다"며, "공직자들의 역량, 민·관의 협력, 그리고 우리 김제시민들의 저력을 잘 어우러진다면 더욱 역동적인 김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권 4대도시로 융비하는 김제'를 캐치프레이즈로 활짝 문을 연 민선8기! 민생과 직결된 인구정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도 김제시의 인구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2월 완주군 인구 497명 증가… 본격 상승 궤도

유희태 군수 "전 세대 동반 증가 긍정적·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강화할 것" 강조

완주군 인구가 3달 연속 3자리 수 증가하는 '더블 쓰리(3·3) 현상을 보인 가운데 전 세대 동반 증가'의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3월 완주군에 따르면 삼봉지구와 용진 운곡지구 주거단지 입주에 힘입어 지난달 말 주민등록인구는 총 9만 5,538명을 기록, 전월대비 497명을 기록했다.

완주군의 인구증가는 작년 12월(646명)과 올 1월(619명)에 이어 2월까지 3개월 동안 3자리 수가 늘어나는 '더블 쓰리(3·3) 현상'을 이어갔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올 2월 중에는 아동(0~17세)과 청년(18~39세), 중장년(40~64세), 노인(65세 이상) 등 전 세대에서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 "완주군 인구가 본격 상승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동인구의 경우 올 2월말 현재 총 1

만 9,568명으로 전월보다 58명이 늘었으며, 2020년 세대의 청년인구 역시 1만 9,805명을 기록해 140명이나 증가했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비수도권에서 아동과 청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쉽지 않은 일로 다양한 청년 정책과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사업 활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젊은 층 전입을 유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중장년층 인구 역시 올 2월 중에만 169명이 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6명이 증가한 2만 3,15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인구 비중이 20%에서 21.1%로 상승하는 등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활동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석이나온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타 시·도 인구의 순유입도 급증하고 있다. 올 2월 중에 타 시도에서 전입해온 인구는 총 404명에 육박, 완주군에서 살다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간 전출 인구(317명)를 크게 앞질렀다. 이로 인해 타 시·도 인구 순유입 규모는 87명을 기록, 전체 인구증가(497명)의 17%가량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들어온 전입 인구(697명)와,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빠져나간 전출인구(277명) 역시 큰 차이를 보여 올 2월 중에만 전주시에서 완주로 순이동한 규모만 420명을 기록했다. 과거 인근 대도시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완주군 인구가 대거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인구 U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셸이다.

완주군 13개 읍·면별 인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통상 인구가 늘어난다 해도 일부 지역에 국한했지만 올 2월 중에는 삼례읍과 용진을 비롯, 이서면, 동상면·경천면, 소양면 등 무려 7개 읍·면에서 동반 증가세를 보여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됐다. /원주=이중복 기자

"네거티브 선거전 멈춰라" | 이중진 완주 용진농협조합장 후보 등



지난 3일 완주군 용진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중진 후보 등 10여명은 원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과 거리가 먼 네거티브 선거전 중단을 촉구했다.

점 행사시 사운드를 제공하는데 쓰였고, 나머지 4,400여만원은 로컬푸드 지원서·직매장·홍보물 설치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그 근거로 의사 진행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후보는 또 "언론에서 제기된 기사 내용은 2022년 11월 원주경찰서에,

같은 해 12월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발 하려 했지만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수사 없이 미루어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강의료 상세내용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된 강의료 1억 4,000만원의 혹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 6,000여만원"이라며 "이 중 1,000만원은 서전주 이율레 인근 로컬푸드 2호

군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배포한 한국농정신문은 언론중재위 재소와 원주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진실을 왜곡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용진농협 조합원님들과 농협 발전에 밀거리를 되는 후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3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5.2% 할인혜택 받으세요"

김제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부를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신납기간에 대하여 세액을 할인해 주는 일시납부 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선납 기간(4~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 시 기별로 3월에는 연세액의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로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욱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적극 추진

거점별 신규 설치 적절·아동 보육서비스 질 향상 효과 기대

완주군이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3월 완주군에 따르면 보육정책의 변화와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장애 영유아를 고려하여 거점별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군의회에서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완주군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완주군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때 장애아보육 우선설치 조건으로 공고하는 방안과 재위탁 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변경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민간 어린이집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품 chất한 완주군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에 나서 관심을 끌었다.

이 의원은 "완주군이 미래행복도시 안심보육"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애 영유아를 위한 통합어린이집이 없어 장애 영유아와 장애 아동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완주군은 관련 법·지정·요건과 세



지난 3일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최승운 금만농협 조합장,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만농협 본관에서 수출기념 상차식이 열렸다.

우리 쌀의 우수성 미국에 '널리'

금만농협 '지평선 신동진 쌀' 미국 수출 상차식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김제시의 주력 농·특산물은 김제시의 주력 농·특산물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수출로 우리 시 고품질 쌀의 우수성과 가능성은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경기 침체 및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품질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유통하여 김제 지평선 쌀의 수출 증대로 우리 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 금만농협의 지평선쌀은 이번 수출에 이어 6월, 9월 중에도 미국으로 추가로 수출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적극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전국 243개 자체 대상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광역·기초 등 전국 243개 자체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이행성과·체감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제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하여 자체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규제에 대한 '자전거설정' 제도 장려 등 능동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실천 결의 운동 등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통해 공직자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김제시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